

신북방정책 실현을 위한 한·몽 사회문화협력 방안

이 평 래(한국외국어대학교)

1. 사회문화 방면의 한·몽 협력과 관련한 발표자의 기존의 제안

오늘 발표할 한·몽 사회문화 방면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발표자가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하여 제안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체류 몽골인(노동자, 결혼 이주자, 학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한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몽골인은 46,923명(2018년 9월 30일 기준←자료의 표-1 참고)인데, 근년 몽골 경제 성장 둔화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비자 간소화 등 추가적인 이유로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지만 300여만 명이라는 몽골 인구를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그런 만큼 한국 체류 몽골인 문제는 자주 뉴스의 초점이 된다.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몽골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이고, 한·몽 협력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문화 방면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과학적 입증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한민족과 몽골족이 형제라는 통념, 한국어와 몽골어가 친연성이 있다는 통념은 두 나라를 더욱 가깝게 해주는 여전히 유용한 소재이다. 실제로 학술교류 등 문화방면의 협력은 가장 성과가 있고, 몽골인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생각하는 협력 분야이다. 특히 문화재 보존과 복원 기술 전수 및 고고학 발굴 기법 전수,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가 양성 사업에 대해서는 몽골학자들 역시 높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와 학술분야의 협력은 양국 국민의 정서를 결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고, 향후 양국 간 협력을 다른 부문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셋째 몽골인의 한국 관광 유치 및 한국기업의 몽골 관광업 진출 등 관광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관광객 유치는 비즈니스라는 현실적 목적과 함께 몽골인들로 하여금 친한국 정서를 갖게 해줄 수 있는 유용한 소재이다. 특히 제주가 몽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국 관광지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제주 관광을 홍보하고 유인할 수 있는 소재의 개발이 시급하다. 역으로 한국기업의 몽골 관광분야에 투자도 전도가 유망한 사업의 하나이다. 몽골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세계적 문화유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교통통신과 각종 관광 인프라 미비로 이들을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

다.. 그러나 몽골정부가 외국 관광객 유치에 대단히 적극적인데다가 근년 울란바타르와 몽골 전역을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이 확충되고, 곧 신공항이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광업의 전망이 어느 때보다 밝다.

넷째 의료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의료 분야 협력은 인도적 측면에서나 현실적 측면에서 양국 협력 중 가장 높게 평가 받는 분야다. 따라서 서울 프로젝트와 같은 협력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몽골인들의 한국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높아 몽골의 중산층 이상인 사람이 중증질환(암, 심장병 등)에 걸리면 거의 100%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상류층은 주로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이는 의료 분야 협력이 한-몽의 우호를 증진시키고 한국 측에 현실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임을 말해 준다.

다섯째 조속히 주몽골 한국문화원을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몽골 20개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초중고에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8개 학교 정도다. 문제는 한국어 수요와 반대로 한국을 배우는데 필요한 자료는 각 대학, 세종학당, 국립중앙도서관 등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는 데 있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몽골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외국이다. 이는 그 만큼 한·몽 간에 교류가 빈번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뿐 아니라 현지에서도 한국 학습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곧 한국문화원이다.

이상 다섯 가지 사항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양국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든 대규모 원조나 공학과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및 광산개발에서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상기 분야이다. 따라서 양국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이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야 한국정부와 기업이 원하는 광산개발권도 따낼 수 있다.

2. 제주와의 협력

○고려·몽골 관계

1218년(고려 고종 18년) 12월 몽골군이 고려 땅을 밟았다. 1216년 몽골군에 쫓겨 고려에 들어와 평양 부근의 강동성에 있던 거란족을 소탕하기 위해서였다. 고려 정부는 몽골과 공동으로 강동성의 거란족을 궤멸시켰다.(1219년 1월) 이때 고려는 몽골과 형제의 맹약을 맺고 매년 공납을 바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1225년 몽골 사신 저고여(著古與) 사건 이후 1231년부터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고려 정부가 몽골에 항복한 1259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몽골의 침략이 이어졌

다. 몽골에 항복한 고려는 그 후 14세기 중반 공민왕이 반원(反元) 정책을 추진할 때까지 약 1세기 동안 원의 지배를 받았다.

○제주·몽골 관계

1266년(원종 7) 11월 탐라의 성주(星主) 양호(梁浩)가 정언(正言) 현석(玄錫)과 함께 몽골에 입조하고, 1267년 정월 쿠빌라이를 만났다. 당시 몽골은 일본과 남송 정벌을 위한 전진기지로 제주도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1269년(지원 6) 7월 몽골은 타타르(脫朶兒), 왕국창(王國昌) 등을 제주도에 파견하여 일본 혹은 남송 원정의 전진기지로서의 유용성에 대해 점검했다.

몽골조정은 원종 14년(1273) 고려와 연합해 삼별초 토벌에 나서고, 이들의 거점 항파두리성을 함락하고, 이를 계기로 탐라를 직할령으로 삼았다. 그 후 몽골의 탐라 경영은 최영이 목호(牧戶) 세력을 평정하는 공민왕 24년(1374년)까지 10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

- 그 결과 제주에는 항파두리성(삼별초의 최후 항쟁터이자 몽골의 제주 지배의 중심지), 강정동 대궐터(원나라 황제의 지시로 건축된 궁전), 법화사(원 황실의 원찰임과 동시에 몽골의 제주 지배를 뒷받침하는 중심지), 원당사(현재 불탑사) 5층 석탑(기 황후 관련 전설), 기타 축분(畜糞)을 연료를 사용하는 것, 몽골 술(아라키)에서 유래한 제주의 고소리 술 등 몽골이 남긴 유산은 무수히 많다.

- 과장하면 제주는 살아 있는 몽골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제주는 몽골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관광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유산과 몽골인의 정서를 잘 활용하여 양국 간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말 관련 협력 사업이다.

-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제주를 말의 고장으로 만든 것은 몽골의 지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는 1276년 8월 탐라 다루가치로 임명된 타라치(塔刺赤)에게 말 160필과 이를 관리할 목호들을 보내 목장을 운영하도록 했는데, 제주는 그 후 원나라의 14개 국영목장이 되었다.

- 몽골의 목장 설치는 말 사육과 그 산출 규모를 그 이전보다 훨씬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제주사회의 변화를 불러 온 요소이다. 예컨대 말 이름 등 말과 관련한 용어 및 민속 등은 대부분 몽골과 관련이 있을 정도로 제주의 말 문화는 몽골의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이겠지만 현재 전국의 말 2만7천 마리 가운데 50%를 훌쩍 넘는 1만5천 마리가 제주에 있고, 제주는 2014년 처음으로 말 산업 특구로 지정받

았으며, 매년 “제주마 축제”(2018년 10월 13일-14일)를 개최하는 등 한국의 말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몽골과의 인연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활용하여 말을 매개로 하는 한·몽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한국 측은 몽골과의 협력으로 제주를 국제적인 말 문화 중심지로 육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몽골인의 제주에 대한 정서를 활용하여 제주를 몽골국의 몽골인 뿐 아니라 전 세계 몽골인(내몽골, 부랴트, 칼미크 기타)의 관광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뒤의 표에서 보듯 몽골의 수출 육류 중 말고기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몽골과의 협력은 제주의 말 산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몽골 정부는 오래 전부터 육류 수출을 국가의 기간 주요 수출품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성장세는 매우 미미하다. 그 이유는 가축질병과 도축 및 처리시설의 미비 때문이다. 몽골 측 입장에서는 말을 매개로 하여 제주(한국)와 수의 및 육가공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몽 간 말 또는 축산 및 수의 분야 협력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몽골·북한 간의 축산 분야 협력과 아울러 한국, 북한, 몽골 3국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난 2013년 10월 엘벡도르지(Ts. Elbegdorj) 대통령의 북한 방문 시 북한의 식량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가축 10,000마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북한정부는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몽골 가축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하여 지난 2014년 12월 29일 북한인들이 화물기를 타고 와서 몽골정부가 제공한 소 104마리를 인수해 갔다.

3. 역사자료, 유물과 유적조사 협력

현재 한·몽 간 문화협력은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각 부처 또는 정부 각 기관의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몽골정부의 고고학박물관 건립에의 협조 요청, 한·몽골 고고학자의 공동 발굴지에서의 유물 전시관 건립 요청, 대형 무덤 발굴 시 중장비 지원 요청 등 현안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한·몽 협력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기왕의 협력에 더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역사자료 조사

－ 한국정부 산하 각 기관들은 오래 전부터 국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으며, 그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근년 몽골정부도 각 학술기관을 통하여 해외에 흩어져 있는 몽골 관련자료 수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도 한·몽의 문화 방면의 협력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특히 명분도 있고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작업이다.

○유물과 유적 조사

－한국정부 산하 각 기관들은 오래 전부터 한국사와 관련이 있는 국외의 유적과 유물에 관심을 갖고 유적지는 복원 보수하고, 유물은 거액을 들여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근년 몽골정부도 각 학술기관을 통하여 해외에 흩어져 있는 몽골 관련 유물과 유적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부록 자료의 한국 소재 몽골 관련 유물조사 표는 몽골과학아카데미 요청으로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상대국에 소재하는 유물과 유적조사도 한·몽 양국의 문화 방면의 협력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도 명분도 있고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작업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한국, 북한, 몽골 3국의 협력도 가능하다. 2013년 10월 28-31일에 북한을 방문한 엘베크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개경을 방문하여 공민왕과 몽골 부인(노국노대장공주)의 무덤을 참배했다. 따라서 현재 한국과 북한 사이에 이루어졌고 다시 논의되고 있는 개경 및 기타 몽골 관련 유적이 소재하는 곳의 조사에서 3국 협력은 북방협력 증진과 관련하여 매우 유용한 주제이다.

4. 가칭 ‘몽골 한국 센터’ 설립 추진

발표자는 이전에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비롯하여 한국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한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한국문화원 설립을 제안했다. 왜 한국문화원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문화원 설립이 어렵다면, 세종학당 등 한국어교육보급사업, 한국유학과 유학생네트워크 관리사업, 한국관광 문화와 한류홍보사업 등을 통합 관리하고, 한국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한국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기관으로 ‘몽골 한국센터’(가칭) 창설을 제안한다.

그리고 동 센터를 통하여 지난 30년 가까운 기간에 축적되어 온 몽골 내 한국어를 구사하는 수많은 인적자원을 양국 간 경제협력에 활용하여 몽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각종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일본 인재개발센터”(http://www.japan-center.mn/?locale=ja)의 활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인재개발센터는 몽골의 시장경제 촉진에 공헌할 인재의 육성과 두 나라 상호이해

촉진을 목적으로 일본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2002년 6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10년 동안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의 지원으로 운영되었지만, 2012년 4월에 몽골국립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편입되어 현재는 국제교류기금(JF)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재개발센터 역시 초기에는 일본어와 일본문화 홍보에 집중되었지만,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재 본 센터 내 한 부서는 비즈니스 담당부서이며, 비즈니스 기초반과 관리자 교육 등 이론 교육, 생산관리, 마케팅 등 현장 교육, 비즈니스 파트너십 발전교육, 일본 연수 등 4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사업, 즉 일본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 사업도 함께 이루어진다.

인재개발센터는 울란바타르 중심에 위치하고, 개소 이래 누적 집계 200만 명의 방문자가 말해주듯 몽골에서 지명도가 높은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일본정부의 지원(JICA, JF)의 지원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몽골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요컨대 인재개발센터는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저개발 국가인 몽골에 필요한 비즈니스 인재 개발에 투자하여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 몽골 외교관이 제안한 몽골·북한의 협력 방안

몽골의 저명한 외교관이자 국제문제 전문가인 바야르후(D. Bayarkhüü)는 몽골과 북한의 외교관계 수립 70주년(2018. 10. 15)을 기념하는 “몽골·북한 관계 70년”이라는 기고문¹⁾에서 향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 중 일부는 한·몽 협력에서도 충분히 활용할만할 뿐 아니라 한국, 북한, 몽골의 3국간 협력까지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양국 간 정치 분야의 관계 및 상호신뢰 증진, 쌍방향의 고위급 인사 방문의 정례화, 둘째 전통적인 경제협력 강화 및 남북 간 항공, 육로, 바닷길이 열린다는 전제하에 몽골 경유 신(新)실크로드를 통한 협력, 셋째 양국 간에 합의된 북한 항구를 활용한 해상운송 분야의 협력, 넷째 양국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시작된 목축업과 농업 분야의 상호보완 및 협력의 강화 외에, 사회문화 방면의 협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중요한 제안을 했다.

아래 두 가지 제안은 단지 몽골과 북한 간의 협력에 그치지 않고 몽골과 한국 또

1) <http://www.baabar.mn/article/mongol-uls-bnasau-iin-khariltsaanii-70-jil>(2018. 11. 12), Монгол улс, БНАСАУ-ын харилцааны 70 жил(2018. 11. 14 검색).

는 몽골, 북한, 한국 3국 협력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문화, 교육,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지속시켜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 협력한다. 예컨대 몽골 운동선수들이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참여할 때 전지훈련을 기상조건이 비슷하고, 지역적으로 가깝고, 스포츠의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북한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2032년 올림픽을 남북이 공동개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 분야 협력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향후 남북협력을 염두에 두고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대비한 몽골 선수들의 전지훈련을 남북 양국에서 실시하고, 가능하다면 3국 선수들이 합동 훈련도 고려해 볼만하다.

둘째 몽골은 한국 및 북한과 관광분야에서 협력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관광벨트와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이 몽골의 항가이(Khangai)와 고비를 경유하여 남한과 북한의 아름다움 자연과 역사문화 명소를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몽·중·러 경제회랑 프로그램에는 인문분야의 협력으로서 초국경 관광 브랜드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28번 러시아의 바이칼 호, 몽골의 홉스굴 호, 내몽골의 홀룬보이르(呼倫貝爾)를 하나로 연결하는 관광 상품 개발에서의 협력과 29번 몽·중·러 3국을 통과하는 ‘위대한 차의 길(Great Tea Road)’을 국제적인 관광 브랜드로 개발하는 안이다.²⁾ 세 지역은 한국 관광객은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 관광객들에게 열려져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이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로 묶어 일종의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낸다면 한국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안은 3국에 걸쳐 있고 교통 인프라를 갖춰 가면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장기적 과제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바이칼, 고비, 홀룬보이르, 북한(금강산), 남한(제주)을 잇는 관광 상품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고비, 북한(금강산)-남한(제주)을 잇는 관광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제주를 다시 한 번 몽골인을 유인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몽골 국 몽골인 뿐 아니라 전 세계 몽골인들의 선망의 관광지로 만들 수 있고, 양국 우호증진과 기타 분야 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6. 재한 몽골인 관련 협력 사항

2) <http://www.news.mn/r/307101>(2016. 6. 27), Эдийн засгийн коридор: Хэрэгжүүлэх төсөл, хөтөлбөрүүд(2018. 11. 14 검색); 최필수, 2016, <중국 및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과 몽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 풀 몽골 분과 세미나(2016. 12. 9).

○재한몽골학교(<http://www.mongolschool.org/>)

재한몽골학교는 한국의 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재한 몽골인의 자녀들을 위해 1999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국내의 일반학교에서 외국인 아동을 받아주지 않았으므로 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을 돕던 한국인들에 의해 공부방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2005년 2월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2006년 4월 몽골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2018년 11월 현재 초중고 3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동교는 교육부로부터 외국인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몽골 교육부로부터는 교과서의 일부만 지원받고 있다. 재학생으로부터 수업료(연 수업료 200만원: 초중학교, 210만원: 고등학교)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동교는 현재 타 외국인학교(예: 미국인학교, 프랑스학교, 일본인학교 등)와 똑같은 기준의 외국인학교로 분류되어 법제상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초중등 교육법에는 외국인학교지원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동교 재학생은 외국인이므로 다문화가족 지원법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非OECD계 외국인학교인 몽골학교의 경우 최소한의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라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제의 수정과 보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주말몽골학교

2016년 엘벡도르지(Ts. Elbegdorj) 몽골 대통령 방한 시 대통령은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 어린이들이 자국의 언어와 문화 및 관습을 배울 수 있도록 ‘주말몽골학교’ 창설을 제안했다.

주말몽골학교는 주한 몽골대사관과 서울시 공동사업으로 2017년 3월 12일에 공식 출범했다. 동교는 공무원, 노동자, 사업가, 결혼 이주자 자녀 등 한국에 거주하는 7-12세 몽골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몽골정부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몽골어 교재와 강의 담당 강사를, 서울시는 시청 산하 서울 글로벌센터를 교육장소로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연령별로 2개 반으로 나뉘 공부하는데, 7-9세 반은 오후 2시-4. 30시까지, 10-12세 반은 오전 10시-오후 12. 30분까지 몽골어와 몽골 문화, 관습을 배운다. 지금까지 60명 아동들이 주말학교에서 배웠고, 현재 25명이 배우고 있다. 2018년 3월에는 수원 분교가 개교하여 현재 약 23명의 학생이 똑같은 목적에 따라 몽골어와 몽골 문화를 배우고 있다.

현재 서울 주말학교는 일요일(수원 주말학교는 토요일)에 수업을 진행하여 많은 아동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수원시)와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임에도 한국 측은 장소 제공 외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어 몽골인 교사의 거의 봉사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안 사항

재한몽골학교는 외국에 있는 순수 몽골학교임에 반하여, 주말몽골학교는 한국학교나 또는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몽골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이다. 전자는 여러 이유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몽골인 부부 자녀들이고, 후자는 순수 몽골인 자녀 외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특히 많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두 학교에 대한 지원은 결국 한국에 체류하는 몽골인에 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적지 않다. 거듭 말하지만 300여 만의 인구 중에서 46,000명은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그리고 향후 한·몽 관계의 증진, 비자의 간소화, 내년으로 예상되는 항공료 인하, 지난 28년 동안 축적된 한·몽의 끈끈한 유대 등을 고려하면 체류자가 더 늘어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한국은 여전히 몽골인이 가장 많이 사는 외국으로 남을 것이고, 이는 한·몽 협력에서 다른 어떤 나라도 갖지 못하는 한국의 강점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한·몽 협력을 든든히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육에 대한 지원은 경제지표 등 외형적 발전 못지않게 몽골의 미래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당해 분야의 협력이 요망된다. 특히 몽골은 2017년 말 현재 총인구의 30.46%(967,896명)가 14세 이하의 젊은 나라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이 국가발전의 절대적 요소이다. 따라서 두 학교에 대한 지원은 한국 거주 몽골인에 대한 지원일 뿐 아니라 향후 한·몽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친한 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1. 연도별 몽골 체류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수
2008	32,206
2009	30,674
2010	29,920
2011	28,634
2012	26,461
2013	24,175
2014	24,561
2015	30,527
2016	35,206
2017	45,744
*2018	46,923

*2018.9.30.기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2. 연도별 몽골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여자	남자	총계
2008	2,288	37	2,325
2009	2,249	43	2,292
2010	2,366	55	2,421
2011	2,334	59	2,393
2012	2,326	69	2,395
2013	2,287	81	2,368
2014	2,312	82	2,394
2015	2,280	104	2,384
2016	2,264	117	2,381
2017	2,266	130	2,396
*2018	2,278	144	2,422

*2018.9.30.기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3. 재한몽골학교 현황

○개교 이후 학생 증감 현황

해당연도	1999년	2005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학생인원	8명	50명	86명	150명	160명	210명	270명	300명

○학년별 학생 현황(2018년 현재)

구분	계	남	여
초등(1~5학년)	141	70	71
중등(6~9학년)	107	53	54
고등(10~12학년)	52	23	29
총계	300	146	154

○교직원 현황(2018년 현재)

자격별 (인원수)	국내교원자격자(6명)	몽골교원자격자(15명)	기타교원자격자(3명)		24명
직위별 (인원수)	교장(1명)	실장(2명)	부장(3명)	교사(18명)	

*발표자 재한몽골학교 현장 조사

4. 한국 내 몽골 유물 현황³⁾

연번	기관명	수량(점)
1	경기도박물관	20
2	경희대박물관	6
3	고성탈박물관	1
4	고관화박물관	2
5	공주석장리박물관	17
6	국립공주박물관	1
7	국립광주박물관	4
8	국립민속박물관	150
9	국립제주박물관	1
10	국립중앙박물관	28,119
11	국립진주박물관	1
1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3

3) 본 현황은 몽골과학아카데미의 요청에 의하여 동 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최근 작성한 것이다.

13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3
14	덕소자연사박물관	2
15	마리소리골악기박물관	1
16	목포자연사박물관	3
17	범패박물관	2
18	부산박물관	1
19	부천수석박물관	1
20	부천옹기박물관	1
21	부천활박물관	1
22	부평역사박물관	1
23	세계다문화박물관	24
24	세계민속악기박물관	3
25	세계술문화박물관리퀴리움	3
26	여주박물관	1
27	연기향토박물관	1
28	영암도기박물관	2
29	인천녹청자박물관	2
30	인천시립박물관	1
31	인천어린이박물관(과학관?)	2
32	자연염색박물관	1
33	진곡선사박물관	164
34	전주대박물관	1
35	제주교육박물관	5
36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16
37	직지성보박물관	114
38	춘원당한글박물관	1
39	충주세계무술박물관	3
40	태백석탄박물관	1
41	통도사성보박물관	4

42	통영시립박물관	4
43	티벳박물관	1
44	프라움악기박물관	1
45	하회동탈박물관	12
46	한독의약박물관	3
47	호야지리박물관	9
48	환희컵박물관	2
계		28,722

5. 육류 수출량(2012-2017)

단위: 1,000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2
소고기	1	0	0.5	0.9	0.7	0.6
말고기	1.5	2.6	0	3.8	8.2	24.9
염소고기	0.6	0	0	0	0.1	0.6
양고기	0.1	0.4	0	0	0.2	1.9
총계	3.2	3	0.5	4.7	9.2	28

*2017년의 경우 2017년 12월 25일자로 몽골 관세청에서 집계하여 발표한 것임